

大河기획/한라산 학술 대탐사(227)

오름숲 속 색다른 고산습지 생태보고 '검벵디'

입력 : 2005. 01.07. 00:00:00

노로오름·살핀오름



▲오름숲 사이에 자리잡은 검벵디.

삼형제오름을 벗어나 노로오름(獐岳)으로 올랐다. '노로'는 노루의 제주방언인데 노루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로오름은 세개의 봉우리로 이뤄져 있다.

삼형제오름에서 노로오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검벵디에서 시작된 창고천의 상류를 건너야 한다. 이 지역은 물자원이 풍부해 표고재배가 이뤄졌던 곳이다. 창고천 상류를 건너니 바로 삼나무조림지가 나왔다. 70년대 녹화사업 차원에서 조림한 숲으로 지금은 간벌작업이 한창이다. 60년대말과 70년대초 삼나무와 편백, 외국산소나무 등을 조림했는데 소나무는 실패하고 삼나무 등도 제주의 강한 바람에 적응하지 못해 크게 자라질 못하고 있다고 한다.

노로오름 중턱에는 이끼 낀 암석들이 아름다운 돌밭을 만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정차연 탐사위원(농업기반공사제주본부)은 원래 1m 길이의 암석이었는데 지표를 덮고 있다가 토양이 약해지면서 침식되자 지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말한다.

정상에 오르니 '국가 중요시설 파손엄금'이라고 새겨진 토지측량에 필요한 삼각점(2등급)이 박혀 있다. 오름에 자꾸 오르다 보면 이런 경우에 '국가 중요시설'이라 함은 그 돌덩이를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오름을 말하는 건지 분간이 안될 때가 가끔 있다.

노로오름에서 내려와 검벵디 위로 지나는데 마치 자연적으로 형성된 정원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데, 바로 삼형제오름과 노로오름 사이로 흐르는 창고천의 발원지라 할 수 있다. 검벵디는 고산습지로서 단일면적으로는 가장 넓고 또 가장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검벵디의 '검'은 신(神)성시한다는 뜻이고 제주방언인 '벵디'는 뒤라고도 하는데 널따란 벌판을 뜻한다. 즉 검벵디는 신성스런 넓은 벌판이라는 말인데 천연의 정원을 갖춘 광활한 습지에 서 있으면 사람사는 세상하고는 다른 분위기에 어디에선가 한라산신이라도 불쑥 나타나 말을 건네올 것만 같다.

정차연 탐사위원은 "검벵디는 습지이면서 큰 분화구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고정균 탐사위원(한라산연구소)도 "연중 물이 수풀 속에 숨겨져 있고 규모도 1100고지 등 다른 고산습지와 비교할 만하다"며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숨겨진 고산습지라 할 수 있다"고 말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지표도로 측정해보니 웬만한 마을공동목장 만한 면적을 차지한다. 검병디를 지나는데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질푼다. 곳곳에 얼음이 언 곳도 눈에 띄는데 밟아도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지역은 이미 한겨울이다.

남서쪽의 삼형제오름과 북쪽의 붉은오름 사이에 있는 살핀오름은 테우리들이 망을 보던 곳, 즉 살피던 곳이라 해서 살핀오름이다. 오창명씨는 또 삼별초 항쟁 당시 김통정 장군 휘하의 병사들이 이 오름에 올라 주변지역의 동정을 살폈다 하여 살핀오름이라 부르고 있다고 해석한다. 지난번 북돌아진오름처럼 제주오름 작명술의 압권이라 할 만하다.

살핀오름에 관련된 정보는 김종철씨의 '오름나그네'에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알려지지 않고 숲도 울창해 오르기가 쉽지 않다. 검병디에서 살핀오름을 확인하고 방향을 잡아 앞으로 나아갔지만 숲 속에서 금새 길을 잃어버린다. 전문산악인 출신의 오문필 탐사위원(제주도산악연맹 부회장)도 정차연 탐사위원이 가져온 휴대용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두 번이나 이용해 방향을 잡을 정도로 동서남북 구분이 어렵다.

정상에 오르니 과거에 '살피던 지점'으로 추측되는 큰 바위가 솟아있는데 나무들이 이미 정상을 점령해 시야를 가려 조망하기가 쉽지 않다. 나무 위로 올라가니 제주 서부지역이 한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살핀오름인가 보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송이성분 달라 생성연대 차이

한라산의 서쪽 중턱을 넘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99번국도(일명 1100도로)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지점(분수령)에 1100고지휴게소가 위치하고, 이 휴게소의 서쪽으로 세 개의 오름봉우리가 연이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세 오름은 동쪽 높은 곳에서부터 서쪽으로 큰오름, 셋오름 및 작은오름으로 이름 붙여져 있는데, 사이좋은 형제들이 나란히 서 있는 것으로 보여 통칭하여 삼형제오름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셋오름과 작은오름의 남쪽에 접하여 두 개의 작은 오름이 접하여 있어 사실상 삼형제 오름은 모두 다섯 개의 오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오름의 분화구는 모두 서쪽으로 트여진 모양이지만 셋오름의 남쪽에 연하여 있는 작은 오름에는 원형분화구가 그 중심에 형성되어 있다. 삼형제오름은 서로 연이어 있다고는 하나 산체를 구성하는 송이(분석)의 성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시기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오름이라 간주할 수는 없다.

삼형제오름의 북서쪽에는 노로오름이 형성되어 있는데, 북동-남서방향으로 4개의 작은 분화구

를 가진 특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노로오름과 삼형제오름의 셋오름 사이에 넓은 습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 창고천과 북쪽으로 외도천으로 이어지는 분수령에 위치하고 있다.

습지대가 형성된 비교적 평탄하면서 넓은 지역은 삼형제오름과 노로오름 화산활동이 종료된 이후 한라산 정상 인근의 윗세오름과 불레오름 등에서 분출한 용암(장석과 휘석 반정광물이 많이 함유된)이 지형경사를 따라 서쪽방향으로 흘러내리다 노로오름이라는 장벽에 막히게 되고 경사지를 용암이 두껍게 채움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정차연 위원(농업기반공사·이학박사 / 지질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